

## 21장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21장에서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21장은 유다가 앗수르에 반대하여 바벨론을 의지하던 배경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애굽을 의지하던 문제는 앞장에서 다루었고, 여기에서는 바벨론의 므로닥발라딘이 보낸 사신과 동맹을 맺은 것을 배경으로 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바벨론은 앗수르의 사르곤에 의하여 702년에 패배를 당하였고 689년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 1. 바벨론 (21:1-10)

‘바다의 광야’ [해변 광야, 개역]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시 나온다. 바벨론이 ‘바다의 광야’라고 불린 것은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바다 가까운 광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즉, 바벨론이 큰 파괴처럼 다른 나라를 삼켰지만 결국 광야처럼 황무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일 수도 있다(참조, 시편 46편). 엘람[페르시아]과 메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의 우상들도 모두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의 우상이 그 나라를 지켜 주지 못할 것이고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바벨론은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이 심판을 선언’ 하였다고 밝힌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행하신 것이다. 따라서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어서 바벨론의 두 동맹국인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짧은 선언들이 나온다.

### 2. 두마 (21:11-12)

**두마**는 에돔 족속을 가리킨다. 그들은 예언자를 파수꾼이라고 부르면서 언제 밤이 지나게 될지를 묻는다. 예언자는 아침이 오기는 하지만 동시에 밤도 올 것이라 대답한다. 앗수르의 통치가 끝나지만 다시 바벨론의 통치가 있을 것을 말한 것이다. 예언자는 그러한 정치적 변화의 와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한다.

### 3. 아라비아 (21:13-17)

예언자는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 있는 드단, 데마, 게달 족속에게 전쟁에서 피하여 도망한 자들을 영접하라고 하고, 게달의 영광이 곧 쇠멸할 것을 알려 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세계를 경영하신다.

#### 21장 익힘 문제

1. 21장에서는 ‘해변 광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1, 9절)
2. 바벨론의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몰려올 것인데 그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3.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빈 곳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함락되었도, 함락되었도다, □□□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사 21:9)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 14:8)

4.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기를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셨는데, 그 파수꾼이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고 말하자 어느 나라가 함락되었으며 무엇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고 하셨습니까? (9절)
5. 이사야는 두마에 관한 경고도 하였는데 두마는 어느 민족을 가리킵니까? (11절)
6. 계달의 영광이 쇠할 것이라는 심판의 선언을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13, 17절)